

뉴스홈 | 최신기사

홈런에 울고 웃는 일본시리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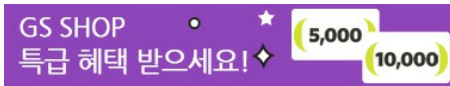
송고시간 | 2008-11-03 10:22



<홈런에 울고 웃는 일본시리즈>

(도쿄=연합뉴스) 장현구 기자 = 홈런 군단거리 맞붙은 일본프로야구 일본시리즈에서 '황'과 '황'의 대결답게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세이부 라이온스가 대포로 1승씩을 나눠 가졌다.

퍼시픽리그 챔프 세이부는 1일 도쿄돔에서 벌어진 일본시리즈 1차전에서 고토 타게하시와 나카지마 히로유키의 솔로 포 2방으로 2-1 승리를 가져갔고 센트럴리그 챔피언 요미우리는 2차전에서 9회말 알렉스 라미레스의 1점짜리 좌중간 굿바이 홈런으로 3-2 역전승을 일궜다.



세이부는 2차전에서도 나카지마가 좌월 투런포를 터뜨리는 등 이번 시리즈에서 홈런을 3방이나 쏘아 올렸다.

요미우리와 세이부는 올해 각각 팀 홈런 177개, 198개를 터뜨려 각 리그 1위를 달렸다.

장타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양팀은 일본시리즈에서 상대 타선의 한 방을 조심하려고 중심 타자를 철저히 봉쇄하고 있지만 실투에 의한 홈런까지는 뜻대로 막지 못했다.

요미우리 마운드는 세이부에서 올 시즌 홈런을 46개나 때린 4번 나카무라 다케야를 1-2차전에서 8타수 무안타 삼진 3개로 묶었다.

세이부 투수진도 큰 경기에서 강한 요미우리의 이승엽(32)을 4타수 무안타 삼진 4개로 잡았다.

결정적인 홈런으로 승패가 갈리다 보니 이승엽의 마음가짐도 약간 바뀌었다. 적시타보다 홈런으로 팀 공헌도를 높이겠다는 각오다.

그는 2차전 직후 "단기전에는 아무래도 양팀에서 좋은 투수들이 총출동하기에 안타를 때려내기 어렵다. 안타 2-3개 때려서는 팀에 큰 보탬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실투를 놓치지 않고 한 방으로 연결하는 게 나을 수 있다"며 홈런타자의 본능을 드러냈다.

이승엽은 현재 한창 잘 맞았을 때 큰 포물선을 그리는 홈런타자 본연의 스윙을 되찾았다. 컨디션이 좋기에 첫 안타로 돌 파구를 찾으면 장타가 계속 나올 가능성은 크다.

라미레스는 연습 때 이승엽의 타구를 지켜본 뒤 "이번 시리즈 최우수선수는 이승엽이 될 것"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.

1-2차전을 치른 현재 요미우리가 세이부 타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막은 것으로 분석된다. 요미우리는 올 시즌 홈런 21개를 때린 나카지마에게 잇달아 대포를 허용했으나 세이부의 강점인 발아구를 잡아 실점을 최소화했다.

도루 50개, 177개에 성공한 세이부 1-2번 타자 가타오카 가즈유키와 구리아마 다쿠미는 각각 안타와 볼넷으로 두 차례씩 출루하긴 했으나 요미우리 배터리의 견제 탓에 도루는 시도조차 못 했다. 가타오카는 1차전에서 투수 우에하라 고지의 견제에 걸려 1루에서 잡히기도 했다.



핫뉴스 →

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, 뉴욕 변호사 시험도 불합격

박진,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"한국에 너무 많은 민주주의"

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...美서 동료 재소자끼리 성관계 후 임신

"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" 2015년 파리 테러범이 밝힌 '그날'...

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...여왕 "양국...

프로야구 LG-SSG전 오심 내린 심판, 2군 강등...

가원전 2-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..."가장 오래...

한국 유튜브,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이나 국경 넘었다 ...



가족찾기 사연 보러가기



결국 양팀 승부는 중심 타선의 한 방에서 결판날 수밖에 없다. 클린업트리오가 서서히 기지개를 켜 가운데 홈런에 일가견이 있는 이승엽과 나카무라가 누가 먼저 대포를 신고하느냐에 따라 양팀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.

cany9900@yna.co.kr

제보는 카카오톡 okjebo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08/11/03 10:22 송고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

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

현장 영상 →

▶ 01:18

[영상] 입·발 묶인채 두 눈만 열쫓쫓...누가 학대했나

▶ 02:22

[영상] 곡사포·수송헬기·장갑차...美, 꺼췄던 무기들
결국 우크라이나

[영상]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
링컨 등 후보군"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

에디터스 픽

Editor's Picks

● 영상

▶ 01:59

[영상] 윤석열, 안철수 '패상' 질문에 "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"

● 뉴스

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, 2년 1개월만 종료...마스크
크는 그대로

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..."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
어"

당신을 위한 콘텐츠의 마당, 롯데캐슬
LOTTE CASTLE
www.lottecastle.co.kr

We Do Technology

尹 당선인 "韓,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...美와 더 강력한 동맹"

'검증의 시간' 시작됐다...한동훈, 청문회 준비 돌입

"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, 학부 4년간 관
련과목 2개 수강"

댓글 많은 뉴스

- 1

김건희 여사 팬카페, '악성 댓글' 누리꾼들 경
찰에 고발

143
- 2

'유퀴즈'尹당선인 출연 논란..."프로그램 취지와
안 맞아"(종합)

65
- 3

정호영 자녀,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
대병원 자원봉사

61
- 4

두문불출 이재명, 이발 염색...조기등판론 속 할
동재개 예열?

56
- 5

문대통령, 손석희와 대담...靑 "임기 5년 소회 밝
힐 예정"

40

뭐하고 놀까? #홍→

유튜브 채널



SNS



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

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#D 그래픽

뉴스상품

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

테마별뉴스	핫뉴스 토피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	출판물	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마이다스
뉴스+	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토피뉴스/사설 이시각 헤드라인	광고	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/홈페이지 출판물
모바일 뉴스	모바일웹 모바일앱	콘텐츠 판매	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
외국어	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	관련사이트	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(K-ODYSSEY) 채용 IR 클럽 #홍

개인사/제휴문의